

이달의 초점

청년의 복합 위기와 기본사회

이주배경 초기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격차와 청년정책 접근성

| 박윤경 |

청년 건강 현황과 과제: 취약청년 중심으로

| 김동진·이지영 |

청년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제도의 정책과제

| 나원희 |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과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2022~2026)

| 함선유 |

청년의 고립·은둔 현황과 과제

| 노혜진 |

청년의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청년복지 제도화 과제

| 김성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최근 청년층 고용 상황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변화(2022~2026)

Recent Trends in Youth Employment and Economic Inactivity in Korea, 2022-2026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2026년 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 청년의 고용 동향과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의사 및 평소 활동상태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증가하던 고용률이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20~24세 남녀 청년의 감소폭이 컸던 반면 30~34세 여성 청년의 고용률은 증가하여 청년 내 이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률이 감소한 시기에는 실업자 비율의 증가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 의사가 있는 이들을 포함하는 확장실업자 비중이 고용 감소 시기 동안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 글에서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사가 감소하고 있는 맥락에서 ‘쉬었음’ 청년의 특성과 산업적 배경을 함께 검토하였다.

1 들어가며

청년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다양한 부문에서 이행이 이뤄진다.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으로 이행할 뿐만 아니라 원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하거나 혼인이나 출산 등을 통하여 본인의 가족을 형성해 가는 시

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의 축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일이다. 일은 자아실현의 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소득이 주거의 독립이나 혼인, 출산 등 여타 부문 이행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정책과 사회학 논의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다.

청년의 노동시장은 시장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 시 기업에서는 주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가장 경력이 짧은 이들을 내보내게 된다(Bell & Blanchflower, 2011, p. 242).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한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청년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이었다(함선유 외, 202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역시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청년 고용에 대한 가시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있다(Brynjolfsson et al., 2025). 즉, 청년은 노동시장의 위기에 가장 취약하며, 이러한 위기는 청년 삶의 여러 취약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청년이 경험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시장 특성을 최근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시기는 2022년 이후부터 현재 가능한 자료인 2026년 상반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부 표의 경우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원고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26년 1~6월 상반기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이 일정하게 회복된 이후라 할 수 있는 2022년부터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의 영향 이외에 최근 청년층에서 확인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청년의 노동시장 현황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지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고용률이나 실업률과 같은 일반적인 고용지표에 더하여 잠

재실업자,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와 같은 보조적 고용지표를 포함하여 노동시장 내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보듯 전통적 지표로는 청년의 노동시장 변화와 취약성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의 특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전반의 최근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는 청년 내의 이질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재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의 연령은 19~34세이나 대학과 군복무 등을 주로 이행하는 19~24세와 노동시장 내에 어느 정도 진입을 마치는 30~34세 청년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도 노동시장 이행 변화는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성별과 연령, 학력 등 청년 내 이질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집단별로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고용률과 취업자의 산업, 직업 동향을 알아보고, 미취업 청년의 구직 의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취업 청년 중에서도 구직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 활동상태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청년의 연령은 19~34세이다.

2 청년의 고용 현황

가.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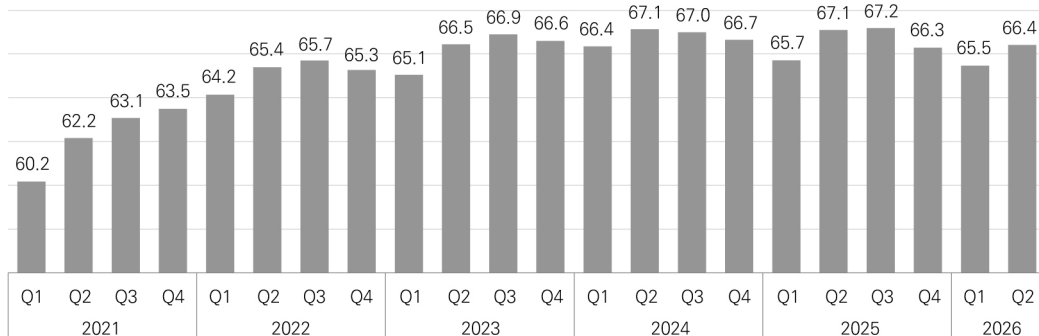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19~34세 청년의 고용률은 66.4%로 2026년 1분기의 65.5%에 비하여 0.9%포인트가량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에 대비하면 0.7%포인트 감소하였다. 보다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청년의 고용률은 코로나19 시기 급감한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부터 고용률 상승폭은 줄어들고, 2024년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하여 고용률이 줄어들었다. 이후 2025년과 2026년에도 청년의 고용률은 정체 혹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기 35~64세 중장년층의 경우 고용률 감소가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 청년의 고용 상황은 일반 노동시장의 추세와 다른

양상이다.

이 같은 고용률의 정체 또는 감소는 청년 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방향을 그린다. 청년을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30~34세 여성의 경우 최근까지도 지속해서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24세 남성과 20~24세 여성은 2024년 이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20~24세 남성의 경우 2024년 4분기와 2025년 1~2분기의 고용률 감소폭이 컸던 반면 20~24세 여성의 경우 2025년 4분기와 2026년 1분기 고용률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 동일한 연령대에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변화 시기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들 초기 청년의 경우 2022년 당시 고용률의 증가 속도가 컸던 반면 감소폭도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시기에 따른 변동의 폭이 크다.

[그림 1] 19~34세 청년의 고용률(2021~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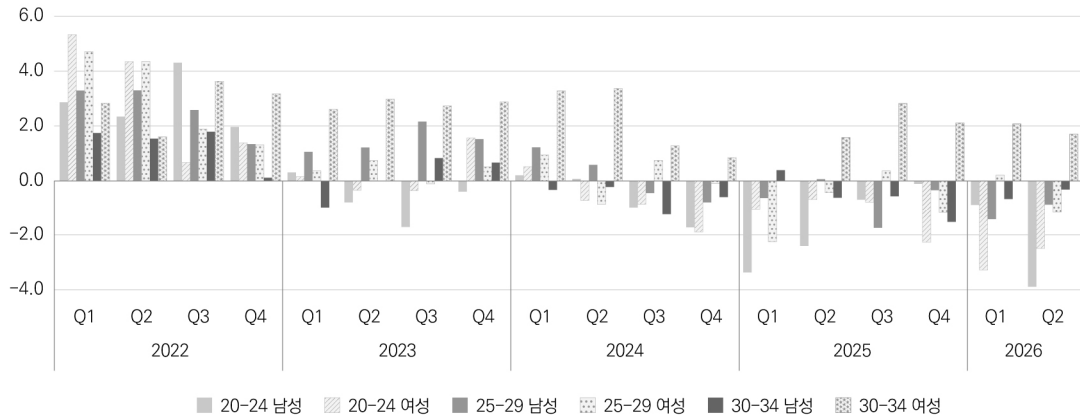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2] 20~34세 청년의 전년 동기 대비 고용률 변화(2022~2026)

(단위: %포인트)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나. 취업 부문과 직업

이 같은 청년 고용률의 변화는 최근의 산업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적으로 취업자 수가 많고 남성 종사자의 수가 많은 부문의 경우 최근 들어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청년층 역시 제조업 종사자의 수가 가장 많은데, 이 부문은 2022년 이래로 청년 취업자 수가 19만 4000여 명 줄어들었다. 해당 산업의 경우 35~64세 종사자의 수도 9만 7000여 명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전체 종사자 수에 대비하면 35~64세의 경우 3.0% 감소인 반면 청년층의 경우 무려 17.6%가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의 수의 감소가 주로 청년층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건설 경기의 악화로 2022년 이래로 건설업 부문의 경우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청년이 많이 종사하는 부문은 아니다. 해당 부문에서 청년의 취업자 수는 2022년 이후 5만 5000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들 부문에 기존에 종사하던 이들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율로 보면 18.4%로 높게 나타난다. 건설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35~64세 중장년층의 규모가 두드러지는데, 2022년 이후 20만 6000여 명, 비율로는 12.4%가 감소하였다.

한편 산업적으로 취업자 수가 확대되거나 성장하는 부문에서의 청년층 고용은 늘어나지 못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부문이 성장하였으며, 2024년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이 확대되면서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고용이 확대된다. 그러나 청년층의 경우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모두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성장하다가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취업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35~64세 중장년층에서 해당 부문 취업자 수가 지속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효과 역시 청년층에서는 제한적이다. 35~64세 중장년층에

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29만 3000명, 20.1%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3만 1000여 명이 줄어들었다.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는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하였지만 고작 7000여 명 증가에 그쳤다. 한편 청년층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취업자 수가 늘어나다가 2024년 이후 증가분의 절반가량이 감소하는 등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표 1] 청년·중장년의 산업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 천 명, %)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2022	2024	2026	2026~2022			2022	2024	2026	2026~2022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제조업	1,105	1,056	910	-194	-17.6		3,193	3,201	3,097	-97	-3.0	
숙박 및 음식점업	675	857	774	99	14.6		1,267	1,224	1,245	-21	-1.7	
도매 및 소매업	861	725	749	-112	-13.0		2,201	2,217	2,097	-104	-4.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81	643	650	-31	-4.6		1,458	1,584	1,751	293	20.1	
교육서비스업	516	500	502	-14	-2.7		1,306	1,287	1,346	39	3.0	
정보통신업	422	457	442	20	4.8		541	622	695	154	28.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54	497	438	-17	-3.7		772	846	884	113	14.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87	323	329	42	14.8		790	767	791	0	0.0	
운수 및 창고업	290	262	271	-20	-6.8		1,153	1,168	1,182	29	2.5	
건설업	300	295	245	-55	-18.4		1,660	1,604	1,454	-206	-1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0	226	241	32	15.0		772	749	706	-66	-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68	212	239	70	41.9		273	276	300	27	9.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75	249	232	-43	-15.6		897	843	833	-64	-7.2	
금융 및 보험업	171	140	174	4	2.1		528	575	599	71	13.4	

주: 각 연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산업대분류 중 2026년 기준 취업자 수가 10만 명 미만인 산업의 결과는 생략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표 2] 청년·중장년의 직업별 종사자 수 변화

(단위: 천 명, %)

	청년(19~34세)					중장년(35~64세)				
	2022	2024	2026	2026~2022		2022	2024	2026	2026~2022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관리자	21	13	14	-6	-31.4	365	380	356	-9	-2.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990	2,064	2,028	38	1.9	3,721	4,038	4,401	680	18.3
사무 종사자	1,573	1,585	1,575	2	0.2	3,160	3,333	3,524	364	11.5
서비스 종사자	792	996	945	152	19.2	2,058	2,066	2,144	86	4.2
판매 종사자	641	513	502	-139	-21.7	1,817	1,763	1,615	-202	-1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41	47	51	10	25.2	619	557	450	-168	-27.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83	380	340	-44	-11.4	1,857	1,676	1,585	-272	-14.6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520	465	416	-104	-20.0	2,225	2,171	2,014	-211	-9.5
단순노무자	597	515	465	-132	-22.1	2,284	2,143	1,925	-359	-15.7

주: 각 연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산업대분류 중 2026년 기준 취업자 수가 10만 명 미만인 산업의 결과는 생략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이러한 결과는 산업적 전환에 있어서 경기가 어려운 부문에서 청년 취업자는 더 가파르게 줄어 들고, 늘어나는 산업 부문에서 청년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한 청년의 고용 감소에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사회적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시장의 노동 수요 감소분에 충분히 대응하지는 못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결국 산업적인 변화가 청년의 고용률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직업에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는데, 특히 서비스 종사자의 취업자 수가 7만 6000여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들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후

2024년까지 빠르게 회복하였다가 2024년 이후 다시 급감하는 양상으로 주로 20~24세 초기 청년들의 일자리 동향을 반영한다.

한편 단순노무자는 2024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이후로 15만 8000여 명이 감소하였다.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역시 2022년 이후 10만 7000여 명이 감소하였다. 이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종사자가 감소하는 양상과 일치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3 미취업 청년과 구직 의사

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한편 청년 취업자가 감소한 시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가령 2024년과 2026년 사이 19~34세 남성의 경우 고용률이 1.0%포인트 줄어드는데, 이 시기 실업자의 비중이 증가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다. 이는 이 시기 미취업 청년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남기보다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양상은 청년 내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2024년과 2026년 사이 고용률은 0.6%포인트 줄어드는데, 비경제활동인구는 0.1%포인트가 늘어나고, 실업자 비중은 0.5%포인트가 증가하게 된다. 즉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 증가폭은 작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의 비중

은 증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더욱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20~24세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고용률이 감소하는 동안 실업자 비중이 증가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업자 비율과 취업자 비율이 모두 줄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나타낸다. 이는 초기 청년이 노동시장 내에서 시장의 변동에 더 큰 폭으로 반응하며 높은 등락률을 나타냄과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5~29세의 경우 20~24세만큼 고용률 하락 폭이 크지 않고 남성과 여성이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남성의 경우 고용률과 실업자 비율이 동시에 하

[표 3] 청년의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변화

(단위: %, %포인트)

		남성			여성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전체 (19~34세)	2024	67.6	3.8	28.7	65.9	3.5	30.6
	2026	66.6	4.1	29.3	65.3	4.0	30.7
	2026~2024	-1.0	0.3	0.6	-0.6	0.5	0.1
20~24세	2024	39.9	2.7	57.4	50.2	4.3	45.5
	2026	34.6	3.4	62.0	46.4	3.7	49.9
	2026~2024	-5.3	0.7	4.6	-3.8	-0.6	4.4
25~29세	2024	70.9	5.3	23.8	74.6	3.7	21.7
	2026	69.5	5.6	25.0	72.8	4.9	22.3
	2026~2024	-1.4	0.2	1.2	-1.8	1.2	0.7
30~34세	2024	86.4	3.1	10.5	73.5	2.7	23.8
	2026	85.8	3.4	10.8	76.2	3.5	20.3
	2026~2024	-0.6	0.3	0.3	2.7	0.8	-3.4

주: 각 연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락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하는 시기 실업자 비율이 증가하였다.

30~34세의 후기 청년의 경우 고용률 변동에서 여성이 다른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보았듯 30~34세 여성의 경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유일하게 고용률이 증가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의 실업자 비율 역시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는 이 연령대 여성들이 통상 자녀 양육 등으로 비경제활동 비율이 높았으나, 최근 비혼, 무자녀 비중이 증가하고, 자녀가 있더라도 맞벌이의 비중 증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여성이 증가하는 배경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30~34세 후기 청년인 남성의 경우 고용률이 0.6%포인트가량 다소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실업자는 0.3%포인트, 비경제활동인구는 0.3%포인트 늘어났다.

나. 확장경제활동인구와 구직 의사

이처럼 취업자 비중이 줄어드는 만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의 비중이 늘어나지 않는 배경은 무엇일까? 혹시 실업자의 기준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은 아닐까? 통상 실업자는 ① 조사 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으며, ② 즉시 취업이 가능하고,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실업자로 구분되는데, 세 가지 조건 중에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즉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들을 의미하는 잠재구직자와 즉시 취업은 어렵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이들을 의미하는 잠재취업가능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취업자 중에서도 불완전 고용으로 인하여 추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불린다. 확장경제활동인구에는 실업자와 잠재실업자,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포함된다.

아래에서는 확장실업자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 흥미로운 점은 잠재구직자와 잠재취업가능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을 때 2024년과 2026년 사이 확장실업자의 비중이 실업자보다 더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하위 집단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전체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 모두 2026년 확장실업자 비중은 2024년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잠재실업자의 비중이 줄어들에 따른 결과다. 특히 25~29세 남성의 경우 확장실업자 비중으로 보면 2년 사이 2.2%포인트 줄어들었다. 같은 시기 고용률이 1.4% 줄어들었음을 고려하면 취업을 하지 않으면서 취업 의사가 부분적으로도 없는 이들의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상은 구직 의사를 가진 청년의 비율로도 확인된다. 비경제활동 청년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던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6년 기준 남성은 22.9%, 여성은 20.1%가량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4년과

[표 4] 청년의 확장실업자 비율 변화

(단위: %,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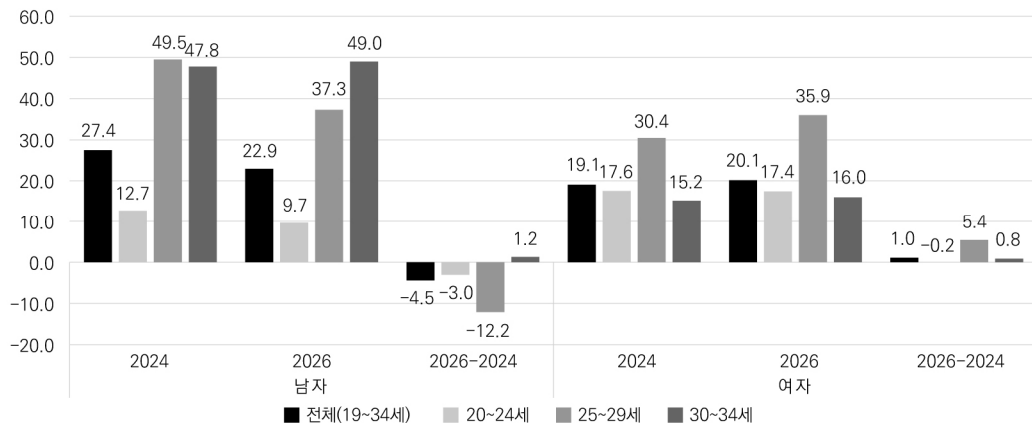
		남성					여성				
		확장 실업자	실업자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시간 관련실 업자	확장 실업자	실업자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	시간 관련 실업자
전체 (19~34세)	2024	10.6	3.8	0.4	4.8	1.6	9.2	3.5	0.5	3.5	1.7
	2026	9.9	4.1	0.4	3.9	1.5	9.4	4.0	0.4	3.1	2.0
	2026~2024	-0.7	0.3	0.0	-0.9	-0.1	0.3	0.5	-0.1	-0.4	0.3
20~24세	2024	8.8	2.7	0.4	4.1	1.6	11.4	4.3	0.4	4.8	1.9
	2026	8.7	3.4	0.3	3.5	1.5	10.6	3.7	0.5	4.0	2.4
	2026~2024	-0.1	0.7	-0.1	-0.7	-0.1	-0.8	-0.6	0.2	-0.8	0.5
25~29세	2024	14.6	5.3	0.3	6.9	2.0	9.2	3.7	0.5	3.6	1.3
	2026	13.2	5.6	0.6	5.2	1.8	11.8	4.9	0.4	4.1	2.4
	2026~2024	-1.4	0.2	0.3	-1.7	-0.2	2.7	1.2	-0.1	0.5	1.1
30~34세	2024	8.2	3.1	0.4	3.5	1.3	7.8	2.7	0.5	2.4	2.2
	2026	8.2	3.4	0.2	3.3	1.4	6.8	3.5	0.2	1.6	1.5
	2026~2024	0.0	0.3	-0.2	-0.2	0.1	-1.0	0.8	-0.3	-0.8	-0.7

주: 각 연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그림 3] 19~34세 비경제활동청년 중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비율과 변화

(단위: %, %포인트)



주: 각 연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 그 비율이 4.5%포인트 줄어 들고, 여성은 1.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앞서 확장실업자에서 살펴보았듯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 의사가 있는 비중이 남성 청년을 중심으로 줄어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25세 이상의 비경제활동 남성 청년들이 여성에 비하여 구직 의사가 있는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25~29세 남성 청년의 경우 구직 의사가 있는 비중이 2026년 37.3%로 2024년 49.5%에 비하여 12.2%포인트가 줄어 들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구직 의사가 있는 비중이 5.4%포인트 늘어났다.

4 비경제활동 청년

가. 비경제활동 청년의 평소 활동상태

이처럼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 의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은 평소 어떠한 활동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지난 1주일간의 평소 활동상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정규 교육기관 통학(남 46.9%, 여 40.1%)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은 쉬었음(남 23.9%, 여 15.6%)이었다. 그다음은 남성의 경우 취업준비(12.8%), 여성의 경우 육아(13.5%)가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어릴수록 정규 교육기관 통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준비와 쉬었음의 비중이 높아졌다. 여성

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육아와 가사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30~34세 여성의 경우 육아가 42.5%, 가사가 24.3%를 차지하였다. 즉 청년 내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 및 평소 활동상태가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 남성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취업준비가 상당히 줄어 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5~29세 청년의 경우 취업준비 중이라는 비중이 5.8%포인트 줄어 들었다. 대신 이 기간 정규 교육기관 통학의 비중은 4.7%포인트, 쉬었음은 1.9%포인트 증가하였다. 20~24세 청년 역시 취업준비 중인 비중은 2.5%포인트 줄어 들었으며, 정규 교육기관 통학은 1.3%포인트, 쉬었음은 1.5%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이 기간 남성 청년의 경우 고용률은 감소하였으나, 실업자 비중은 늘어나지 않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으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 의사를 갖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었음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육아와 가사의 비중 감소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육아 비중이 2024년에 비하여 2026년에 줄어 들었다. 특히 25~29세 여성은 4.0%포인트, 30~34세 여성은 3.2%포인트 줄어 들었다. 같은 기간 25~29세 여성의 경우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 통학, 쉬었음, 취업준비의 비중 모두 늘어났다. 30~34세 여성 역시 취업준비와 쉬었음이 증가한다. 여성의 경우 기존에 육아 및 가사로 인하여 노동시장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취업자의 비중 증가와 실업자 증가, 비경제활동인구더라도 구직 의사가 있는 비중이 증가하는 등 남성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여성과 남성의 최근 변화의 동인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청년 비경제활동인구의 평소 활동상태 비율과 최근 변화

(단위: %, %포인트)

	전체(19~34세)						20~24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4	2026	2026~2024	2024	2026	2026~2024	2024	2026	2026~2024	2024	2026	2026~2024
육아	0.0	0.1	0.0	16.6	13.5	-3.1	0.0	0.0	0.0	2.2	1.6	-0.6
가사	0.5	0.7	0.2	9.7	8.7	-1.0	0.2	0.1	-0.1	1.5	1.0	-0.5
정규 교육기관 통학	46.3	46.9	0.6	38.1	40.1	2.0	66.3	67.7	1.3	63.6	65.6	1.9
입시학원 통학	2.0	2.0	0.0	1.2	1.4	0.2	2.0	1.2	-0.8	1.4	1.0	-0.4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5.1	5.1	0.0	3.8	4.6	0.8	3.1	3.2	0.1	3.8	3.7	-0.1
취업준비	15.9	12.8	-3.1	11.0	11.6	0.6	6.6	4.1	-2.5	10.8	11.4	0.6
진학준비	2.4	2.7	0.4	2.9	2.6	-0.3	2.6	2.7	0.1	4.1	3.3	-0.8
심신장애	2.3	2.5	0.2	1.4	1.6	0.3	1.0	1.1	0.1	1.0	1.3	0.3
군입대 대기	2.5	2.8	0.3	-	-	-	3.6	4.0	0.4	-	-	-
쉬었음	22.6	23.9	1.4	15.0	15.6	0.6	14.4	15.9	1.5	11.4	10.8	-0.6
기타	0.6	0.5	-0.1	0.4	0.4	-0.1	0.3	0.2	-0.1	0.2	0.4	0.2
	25~29세						30~34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24	2026	2026~2024	2024	2026	2026~2024	2024	2026	2026~2024	2024	2026	2026~2024
육아	0.0	0.0	0.0	14.7	10.7	-4.0	0.3	0.3	0.0	45.7	42.5	-3.2
가사	0.4	0.3	-0.1	10.5	9.3	-1.2	2.1	3.8	1.8	24.2	24.3	0.1
정규 교육기관 통학	26.1	30.7	4.7	20.8	18.0	-2.8	8.3	5.4	-2.9	3.1	4.1	1.0
입시학원 통학	0.0	0.9	0.9	0.3	0.0	-0.3	-	-	-	-	-	-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9.4	7.5	-1.9	5.7	9.2	3.5	5.1	8.1	3.0	2.7	2.5	-0.2
취업준비	29.9	24.2	-5.8	18.5	20.7	2.2	27.8	24.9	-3.0	7.0	7.4	0.4
진학준비	1.2	1.9	0.7	2.4	1.9	-0.5	1.2	1.1	-0.2	0.6	0.4	-0.1
심신장애	4.0	3.8	-0.2	3.1	2.3	-0.8	4.7	5.9	1.2	0.6	2.0	1.4
군입대 대기	0.3	0.1	-0.2	-	-	-	-	-	-	-	-	-
쉬었음	28.1	30.0	1.9	23.2	27.1	3.9	48.6	49.8	1.2	15.9	16.6	0.7
기타	0.6	0.6	0.0	0.7	0.7	0.0	1.9	0.8	-1.1	0.3	0.2	-0.1

주: 각 연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다. 쉬었음 청년의 분포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지난주 활동상태를 ‘쉬었음’으로 응답한 청년의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양상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육아나 가사, 건강 문제와 같은 별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취업준비나 진학준비, 취업을 위한 기관 통학 등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은 이들을 의미하는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청년에 대한 관심과도 같은 맥락이다. 유사하게는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을 원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쉬었음 청년이 주목 받는 이유는 앞서 살펴보았듯 일을 원하지 않았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맥락이 있다. 구직단념자나 니트의 경우 일을 원하는 지나 취업 의향이 있는 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아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그림 3]에서는 쉬었음 청년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청년의 특성별로 쉬었음 청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의 인적 속성을 기준으로 보면 2026년 상반기 쉬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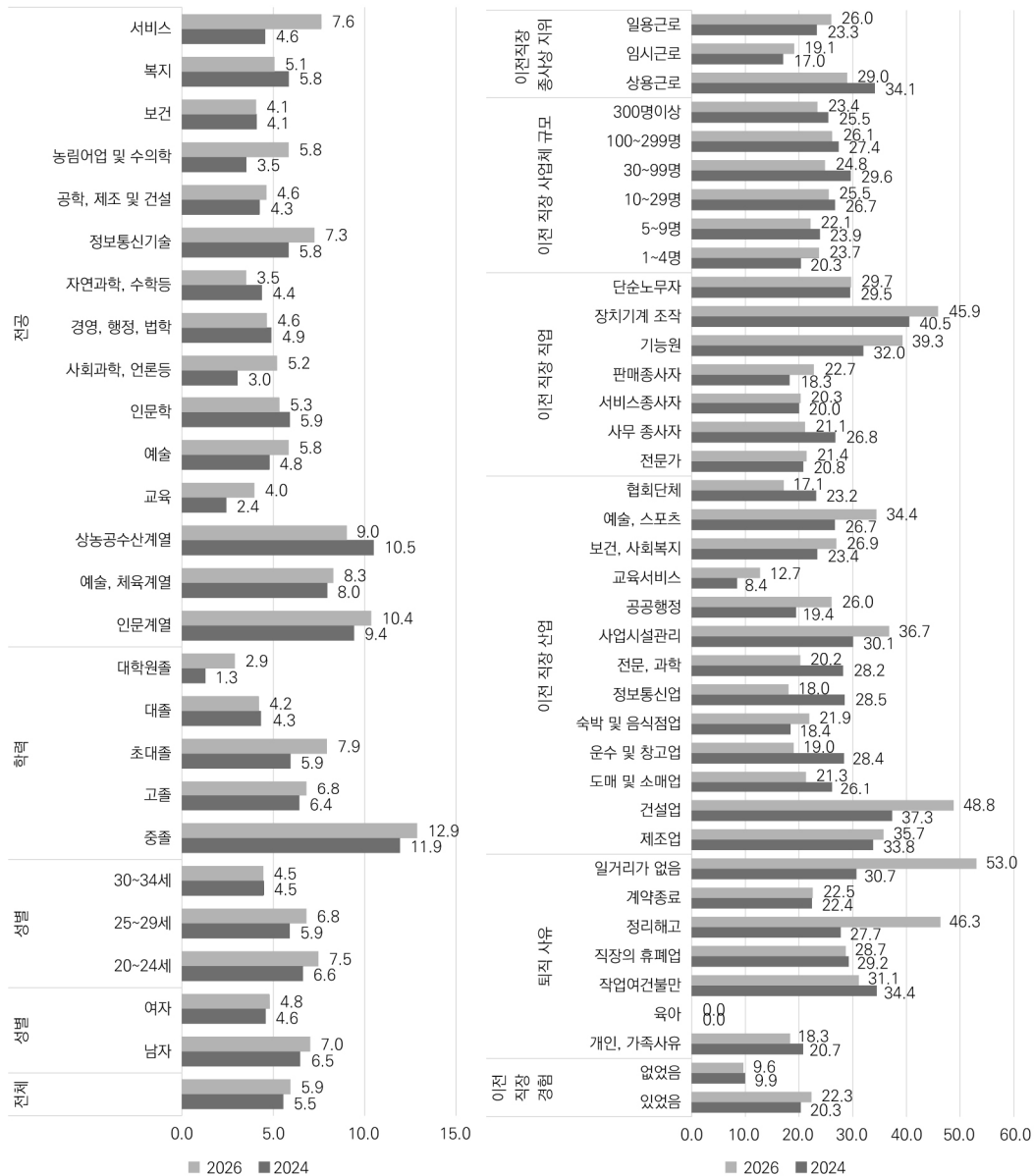
청년 인구는 전체 청년 인구의 5.9%이다. 이는 2024년 5.5%에 비하여 0.4%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더 높고, 연령은 어릴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대졸자 또는 대학원졸업자 보다는 중졸, 고졸, 초대졸 청년들의 쉬었음 청년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데, 가령 중졸 청년의 경우 12.9%가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지난주 쉬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학교 전공별로 보면 우선 고등학교 전공을 나타내는 인문계열, 예술, 체육, 상공농수계열의 경우 낮은 학력을 반영하여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정보통신과 서비스를 전공한 이들 중 쉬었음 청년의 비율이 높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정보통신과 서비스 전공의 경우 특히 2024년에 비하여 2026년 큰 폭으로 쉬었음 청년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전 직장 경험 여부와 이전 직장의 특성별 쉬었음 청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이전 직장 경험이 없었던 이들에 비하여 있었던 이들에서 쉬었음 청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¹⁾ 이전 직장 경험이 있었던 이들이 퇴직한 사유별로 보면 일거리가 없었거나 정리해고와 같이 노동시장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 쉬었음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개인, 가족 사유나 작업여건 불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쉬었

1) 모든 연령대에서 이전 직장 경험이 있을 경우 쉬었음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낮은 연령에서 이전 직장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났다. 20~24세의 경우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경우 16.0%가, 이전 직장 경험이 없는 경우 9.5%가 쉬었음으로 나타났으며, 25~29세 역시 각각 27.8%, 12.1%로 두 집단 간 차이가 두 배 이상 났다. 다만 30~34세의 경우 이전 직장 경험이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이 각각 24.0%, 22.5%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림 4] 19~34세 청년의 특성별 쉬었음 청년 비중

(단위: %)



주: 각 연도 상반기(1~6월)를 기준으로 작성함. 집단별로 '쉬었음' 청년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임. 이전 직장에 관한 항목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이들에 한하여 조사됨.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원자료 분석.

음 비중이 낮았다.

이전 직장의 산업을 살펴보면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청년의 쉬었음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특히 2024년과 2026년 사이에 그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 외에도 제조업과 사업시설 관리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역시 2026년 기준 쉬었음 청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이전 직장이 장치기계 조작 종사자이거나 기능원인 경우 특히 쉬었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취업자 수 변동에서도 살펴보았듯 건설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수의 감소가 컸으며, 이들 직업에 종사하였다가 퇴직한 이들이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두드러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적 변화는 특히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남성 청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쳐 남성 청년 중 구직 의사가 있거나 취업준비 중인 청년의 비중이 감소한 양상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숙박 및 음식점업이나 도매, 소매 판매업과 같이 청년의 일자리 규모도 크고 변동폭도 큰 업종의 경우 쉬었음 청년의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건설업이나 제조업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5 나가며

이 글에서는 최근 청년의 고용 동향과 일자리 분야, 미취업자의 구직 의사와 평소 활동상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의 노동시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은 성별,

연령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볼 경우 상당한 정보를 누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가령 20~24세 남성과 여성 청년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고용률의 변동성이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이 감소하는 시기 실업자가 증가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양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연령대의 경우 정규 교육기관 통학의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25~29세와 30~34세 청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경로가 이질적이었다. 30~34세 여성 청년들은 최근 육아 및 가사를 위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남는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고용률은 2024년 이후에도 지속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층 내에서도 각기 다른 어려움을 나타내는 청년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2024년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청년 고용률의 상당 부분은 제조업과 건설업 등 최근 산업경기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최근 남성 청년의 고용률 하락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러한 산업적인 변화가 단순히 취업자 수의 감소로만 귀결되지 않았다.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들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이들은 취업준비나 상급학교 진학 등이 아니라 ‘쉬었음’의 비중이 여타 산업군에 종사하였던 이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난다. 즉 이 분야의 취업자 수 감소뿐만 아니라 구직의욕이

줄어드는 맥락에 산업적 변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산업 변동의 영향은 쉬었음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근로의욕이 부족한 개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쉬었음 청년에 대한 대책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넘어 전직 지원이나 사회 부문에서의 고용 등 노동시장적 요인에 대한 대응과 결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들은 이들 쉬었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공공 부문이나 대기업과 같이 통상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아니며, 급여 수준 역시 연봉 3,100만 원 수준으로 여타 청년층과 비교하여 높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윤진영 외, 2026). 실제 이 글의 분석에서도 대졸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보다는 중졸, 고졸, 초대졸 청년들의 쉬었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청년에 대한 일자리와 교육 훈련 대책들은 대기업이나 인공지능(AI)·디지털 부문과 같은 주로 일반적인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책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요인에 의한 쉬었음 청년의 욕구에는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2024년 이후 정보통신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AI의 활용으로 이들 부문의 초직자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는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다. 특히 이들 부문에서 중장년층의 고용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 팽창의

혜택을 청년층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 부문에 종사하였던 이들의 쉬었음 비중은 높지 않지만, 정보통신 전공자의 쉬었음 비중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부문의 청년 고용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 윤진영, 김민정, 오삼일. (2026). **‘쉬었음’ 청년의 특징 및 평가: 미취업 유형별 비교 분석**. 한국은행.
-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고용변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ell, D., & Blanchflower, D. (2011) Young people and the great recession.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27(2), 241–267. <https://doi.org/10.1093/oxrep/grr011>
- Brynjolfsson, E., Chandar, B., & Chen, R. (2025).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Economy.

Recent Trends in Youth Employment and Economic Inactivity in Korea, 2022-2026

Ham, Suny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Using data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2022-2026, this article examines changes in employment among young people aged 19-34 and the job-search intentions and usual activity status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in this population. The employment rate increased from 2022 through 2024 but declined or remained unchanged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onward. The decline in the employment rate was particularly pronounced among both men and women aged 20-24, while women aged 30-34 saw increases in employment, indicating considerable heterogeneity within the young population. The decline in employment was accompanied not so much by an increase in unemployment as by an increase in economic inactivity. Of the economically inactive population, the proportion classified as 'extended unemployed', which includes those willing to seek employment, declined by a greater margin during the period of falling employment. Amid declining willingness to seek employment among unemployed and economically inactive youth,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adults who describe their being out of employment as "taking a break" and the underlying industrial context.